

도크 가득 채운 특수선 블록… “美 함정 MRO 사업 박차”

르포

HJ중공업 영도 조선소

스키드 공법 통해 건조물량 극대화
군함 등 2028년까지 수주물량 확보
美 ‘마스가 프로젝트’ 수혜 기대

“미국 항공모함도 정박할 수 있는 수심과 부두를 갖춘 만큼 향후 미 해운 함정 MRO 사업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

지난달 31일 찾은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만난 유상철 대표는 “MR O 시장은 우리 조선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독도함과 마라도함 등 한국 해군 함정의 상당수를 건조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확대해 나갈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전경. /HJ중공업



지난 31일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유상철 HJ중공업 대표가 한국해양기자협회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것”이라고 강조했다.

HJ중공업은 상선뿐 아니라 함정, 특수목적선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1974년 국내 함정부문 방위산업체 1호 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해군의 대형 수송함 독도함과 마라도함, 초계함, 상륙함, 공기부양정, 해양경찰의 경비함 등을 건조해 오며 국내 최대 함정 건조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2009년 취항한 한국 최초의 극지용 쇄빙 연구선 ‘아라온’호(7500톤급)의 기본설계와 건조도 HJ중공업이 맡았다.

영도조선소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선박이 건조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오선, 삼성중공업 등 국내 빅3 조선소와 비교해 좁은 야드를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조선소의 상징인 골리앗 크레인도 없지만 자체 개발한 3000톤의 무게를 옮길 수 있는 해상 크레인을 활용해 작업하는 ‘스키드 공법’을 진행하고 있다. 배한 척을 짓는데 160개 이상의 블록이 들어가는데 이를 최대한 조립한 뒤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 도크 안으로 옮겨 넣는 방식이다. 이 공법을 통해 도크 점유 시간을 줄이고 연간 건조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날 영도조선소의 3개 도크는 건조를

위한 선박으로 채워져 있었고 작업자들의 움직임은 분주했다. 특수선 블록을 조립하는 현장에서는 해군 경비함과 공기부양정이 눈길을 끌었다. 또 MRO 작업을 위해 안벽에 정박한 독도함도 자리하고 있다. HJ중공업은 지난해 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423억원 규모의 독도함 창정비사업과 254억원 규모의 고속상륙정 창정비사업을 확보했다. 고속상륙정은 전차 한 대와 병력 24명, 또는 병력 150명을 태워 해안에 상륙하는 전천후 첨단 함정으로 시속 9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현재 영도조선소는 2028년까지 수주물량을 확

보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HJ중공업은 앞으로 특수선 분야에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 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통한 실적 상승세도 기대하고 있다. 유대표는 “올해 미국 해군 함정 MRO에 필요한 함정정비협약(MSRA) 인증 실사를 마쳤고 1~2개월 내 결과가 나온다”며 “마스가 프로젝트와 연계 될 경우 기존 실적에 ‘보너스’로 성장 여력이 더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도조선소는 외국인 인력 확보에도 다른 조선소와 차별점을 두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 다국적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고 한국가의 근로자만 채용해 문화적, 언어적인 벽을 없앴다.

유 대표는 “필리핀 수빅조선소 시절 기술공들 200여명을 선발해 채용했다”며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 작업 지시 속도가 빠르고 단일 국적 체계라 관리 효율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APEC 참석차 방한한 필리핀 이주노동부장관에게 현장 근로환경을 공개했으며 추가 인력이 필요한 도장 분야에 대해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모듈형 냉각 솔루션 선보인다

美 플렉스와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
냉각 솔루션 방식·활용 방안 다양화

LG전자가 미국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 플렉스와 협업을 냉각 솔루션 적용 방식과 활용 방안을 다양화한다.

LG전자는 플렉스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발열 문제를 해결할 ‘모듈형 냉각 솔루션’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LG전자의 칠러, 냉각수 분배 장치(CDU), 데이터센터 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컴퓨터룸 공기 처리 장치(CRAH) 등 고효율 냉각제품과 플렉스의 IT·전력 인프라 등을 결합해 모듈형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듈 기반 구조로 설계된다. 사전 조립 및 테

스트된 냉각 모듈 형태로 제작돼 현장에서 다른 모듈들과 결합된다. 고밀도 컴퓨팅 환경에서 발생하는 열 부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냉각 모듈을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데이터센터의 열 관리 요구 사항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고 빠른 배포와 설치가 가능해 기존 냉각 솔루션과 차별화된다.

양사는 이번 협업을 통해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이 간소화되고,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확장형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렉스는 데이터센터는 물론 자동차, 헬스케어, 통신 등 다양한 산업의 고객들에게 설계, 개발, 제조, 공급망 관리, 사후 서비스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특히 전자제품위탁생산(EMS)분야

를 선도하고 있다. 올해 타임지(TIME)가 선정한 세계 최고 기업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LG전자는 공기 냉각과 액체 냉각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냉각 기술을 앞세워 데이터센터의 효율적인 냉각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냉각 용량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린 냉각수 분배 장치를 신규 개발한 데 이어, 데이터센터 냉각방식 중 전력효율지수(PUE)가 가장 낮은 액침 냉각도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다.

LG전자 ES사업본부장 이재성 부사장은 “플렉스와의 협업은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 고객에게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AI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LG전자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기아-모타빌리티, 영국 내 PBV 보급 협력

〈목적기반모빌리티〉

전동화 WAV 개발 리더십 확보

기아가 영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 대상 리스 차량 운영사 모타빌리티(Motability)와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보급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기아는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기아 사옥에서 기아 송호성 사장, 모타빌리티 앤드류 밀러 CEO, 다미안 오톤 CC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국 내 PBV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PV5 등 기아 PBV 라인업을 활용해 이동 약자용 모빌리티의 전동화 전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아는 MOU에 따라 모타빌리티에 PV5 기본형 및 PV5 WAV 모델을 공급하고, 모타빌리티는 2026년부터 영국 현지에서 이를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기아 사옥에서 모타빌리티 앤드류 밀러 CEO(왼쪽)와 기아 송호성 사장이 영국 내 PBV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또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아는 전동화 WAV 개발 리더십을 확보하고, 모타빌리티는 중·장기적 전동화 전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양사는 WAV 시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향후 출시 예정인 기아의 대형 PBV ‘PV7’의 WAV 컨버전 모델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LG화학-시노펙, 차세대 전지소재 개발 ‘맞손’

친환경 에너지·고부가 소재 분야 협력

LG화학이 중국 최대 종합 에너지·화학 기업 시노펙(SINOPEC)과 손잡고 차세대 전지소재 개발에 나선다.

LG화학은 지난달 30일 중국 시노펙과 소듐이온전지(SIB) 핵심 소재 개발을 위한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시노펙은 중국 최대 규모의 종합 에너지·화학 기업으로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 정유, 화학, 신에너지, 신소재 사업

을 아우르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소듐이온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등을 공동 개발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소듐이온전지는 리튬이온전지에 비해 자원 접근성이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면서도 리튬인산철(LFP) 전지보다 저온에서 성능 저하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 기존 리튬이온전지보다 안전성과 충전속도가 높아 글로벌 시장에서 차세대 전지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소듐이온전지 시장은 2025년 10GWh에서 2034년 292GWh 규모로 연평균 약45%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소듐이온전지 제조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LG화학과 시노펙은 이번 공동개발을 통해 중국 등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보급형 전기차(EV) 시장을 타깃으로 소듐이온전지의 사업모델을 다각화하고 향후 친환경 에너지 및 고부가 소재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SDI, 테슬라 ESS용 배터리 공급 협의

3년에 걸쳐 3조원 이상 거론

삼성SDI가 미국 테슬라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공급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급 규모는 3년에 걸쳐 3조원 이상으로 거론되며 성사될 경우 글로벌 ESS 시장 내 입지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SDI는 4일 공시를 통해 “배터리 공급 논의를 진행 중이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향후 본 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테슬라 ESS 담당 임직원이 최근 방한해 삼성SDI와 최소 3년 동안 매년 10GWh 안팎의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한편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국내 배터리 3사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견조한 ESS 분야로 사업 중심을 옮기고 있다. 삼성SDI는 최근 실적 발표회에서 SPE 공장 일부 라인을 ESS용 배터리 생산으로 전환해 북미 수요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원관희 기자